

순천시, '루미와 똥이' 캐릭터 명예홍보대사 위촉

✎ 정상명 기자 | ⓒ 승인 2021.03.02 17:14



‘루미와 똥이’는 순천시의 마스코트인 흑두루미와 짱뚱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캐릭터 특유의 귀여움과 매력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에 따라 순천시는 더 재미있고 친근한 방법으로 시정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순천시는 2일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루미와 똥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루미와 똥이’ 인형탈을 쓰면 누구나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루미와 똥이’는 순천시의 마스코트인 흑두루미와 짱뚱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캐릭터 특유의 귀여움과 매력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에 따라 순천시는 더 재미있고 친근한 방법으로 시정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시는 캐릭터 명예홍보대사를 활용해 시의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콘텐츠도 제작할 계

획이다.

순천만 야시장 개장, 평생학습박람회, 3대 시민운동,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포토존, 참여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하며, '순천 대중가요', '순천 체조 챌린지'와 같이 루미와 똥이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또한 뉴미디어 트렌드에 따라 루미와 똥이를 실존하는 인물처럼 일상 속 활동사항을 스토리텔링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캐릭터 명예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순천시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명 기자 jsgevent@hankooki.com